



한국볼트공업주식회사는 30년 동안 볼트업계에서
외길을 걸어온 우리 산업의 산증인이다.
국내 볼트·너트 수출량의 15%를 차지하며
국내 이 분야의 선두주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뿐 아니라
93년 부설 기술연구소를 설립, 기술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 볼트산업의 산증인 韓國볼트공업주식회사

▶ 오늘의 「한국볼트」를 있게 한 TRACK볼트와 T·S볼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崔燾興상무(左)와 申元泳전무(中), 宋明燮상무



볼트·너트만을 고집해 온 기업.
국내보다 국외에서 더욱 유명한 기업. 일찍이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에 붐이 조성되기 이전인 1960년대부터 「한국볼트」공업주식회사(사장 宋寬燮)는 건축과 교량 등 산업기계용으로 사용되는 볼트를 제조하기 시작한 기업이다.

30년 외길 기술神話 창조

30여년이란 긴 세월동안 한눈 팔지 않고 그야말로 외길을 걸어온 「한국볼트」는 우리나라 산업의 산증인이기도 하다. 국내외의 술한 변화를 겪어온 때문인지 모든 시련을 극복하여 영근 열매처럼 강하고 우직한 기업 이미지를 풍기는 한국볼트.

우리나라 최대 공업단지인 반월공단(경기도 안산시 원시동)에 자리한 「한국볼트」공업주식회사를 찾아가 보았다. 요란한 기계음을 내며 생산해내고 있는 제품은 「TRACK볼트」로 미국 전 지역에 깔려있는 철도레일을 연결시켜 줄 볼트이다.

1977년부터 현재까지 납품하고 있는 이 제품이야말로 「한국볼트」의 기술신화를 이룩할 수 있게 한 효자제품이다. 지금도 월간 매출액이 6백만달러에 달한다는 「TRACK볼트」의 월 생산량은 60~70만개.

“우리나라 경부선 전 철도레일에 사용된 볼트량의 2배 분량이 월 생산량”이라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겠느냐고 崔燾興상무는 다소 자랑섞인 어조로

설명을 덧붙였다.

「한국볼트」의 「TRACK볼트」는 일본이 독점해 오던 것을 미국의 수입선 다변화정책에 따라 채택되어 미국 철도레일에 사용되는 트랙볼트의 80%가 이 제품으로 채워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중국과 인도에서도 수출을 했지만 품질면에서 뒤떨어져 한국볼트 제품의 우수성으로 더욱 경쟁력을 높일 수 있었다는 후문도 들려주었다. 이처럼 품질에 승부를 건 「한국볼트」는 지속적인 수출경쟁력을 키워, 뚝기 힘들다는 유럽시장과 호주, 동남아 등 전 세계에 판로를 개척했다.

국내 최초로 T·S볼트 개발

또한 국내시장에선 다소 소홀했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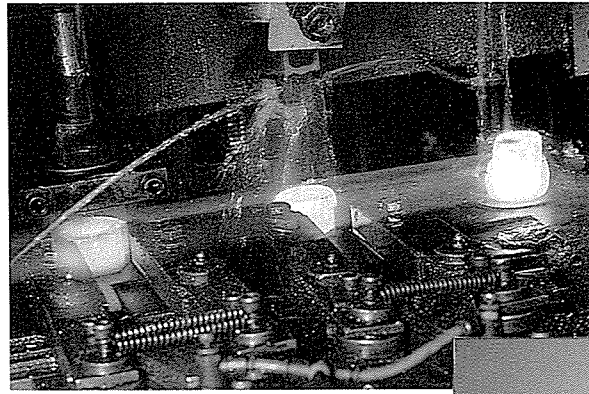
건축토목공사에 들어가는 T·S볼트 (Torque - Shear Type High Strength Bolt)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여 내수판매에도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6년 전에 개발된 T·S볼트는 건축과 토목교량 등에 사용되는 6각 고장력볼트의 단점이 보완된 제품.

“볼트와 너트, Washer의 세부부분으로 구성된 T·S볼트는 전용전동렌치(wrench)를 사용하여 쉽게 체결할 수 있으며 일정한 torque(회전시키는 힘)에 의해 높은 clamping force(나사로 죄는 힘)를 낼 수 있다”고 소개하는 최상무는 “T·S볼트는 철구조물 설치시 일반 6각 고장력볼트를 사용할 때보다 체결시간을 반 이상 절약시킬 수 있어 공기(工期)를 상당기간 단축시킬 수 있다”고 소개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T·S볼트개발이 갖는 중요한 의의는 현재 torque wrench에 의한 체결검사가 생략되고, 육안검사로 torque에 의한 체결이 확인되어 완벽한 시공이 가능하다는 점이라고. 따라서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교량 철구조물처럼 완벽한 시공이 요구되고 있는 곳에 T·S볼트의 사용은 불가피하다고 최상무는 힘주어 강조한다.

일본에서는 95% 정도가 6각 고장력볼트에서 T·S볼트로 대체되었고 국내에선(현 30% 대체) 한국도로공사에서 안전시공을 위해 T·S볼트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과 관련, 앞으로 대체 가능성은 더욱 높아 T·S볼트의 수요는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더욱이 일부 석유·화학계열의 정유 회사에서는 「한국볼트」의 제품을 지정할 정도로 품질에 인정을 받고 있는 터라 국내 몇 안되는 T·S볼트 전문



◀경기도 안산시 반월공단 제1공장에 있는 열간기 제조공정에서 너트가 생산되고 있다.

▼각종 건축물이나 교량 체결시 완벽시공을 위해서 필요한 T·S볼트

제조업체 중 하나로 T·S볼트의 주문량이 쇠도할 것이라고 최상무는 내다봤다. 그러나 T·S볼트부분 중 일본에서 전량 수입되고 있는 특수체결기인 전동 wrench가 수입규제 다변화 품목에 묶여있고 국내 개발 또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량으로 몰려들 주문생산에 차질이 빚어지진 않을까 하는 우려를 토로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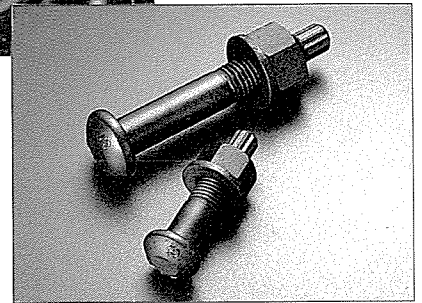
볼트와 너트가 눈에 보이는 부품은 아니지만 산업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큰 핵심부품이다.

量産체제로 수출 15% 점유

「한국볼트」는 1976년 열간(熱間) 너트기기를 국내 최초로 도입함으로써 수작업에 의존하던 국내 제조기술에 일대 혁신을 일으키면서 대량생산체제 시대로 막을 연 기업이다.

93년도에는 냉간(冷間)제조기기마저 도입하여 제2공장이 들어선 시화공단에서 가동하게 함으로 소형은 냉간에서, 대형은 열간에서 제조하게 하는 이른바 볼트업체로서 갖추어야 할 완벽한 시스템을 보유한 셈이다.

금속공업협동조합 통계에 의하면 국내 볼트·너트 전 수출량 중 15% 정도를 생산해내고 있는 「한국볼트」는 볼트·너트의 전문 제조업체로 국내



이 분야 산업에서 선두주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30년이 넘게 단일품목만을 고집해 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보수적이란 인상도 주지만 외길 인생에 승부건 「한국볼트」의 창립자인 宋宙植회장의 장인정신은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고 최상무는 전한다.

93년 사내 부설 기술연구소를 설립,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작년에 장외등록을 마치고 내후년쯤엔 상장기업으로 성장하게 될 「한국볼트」가 어떤 모습으로 변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볼트·너트업계로선 두번째로 상장하게 된다는 점에서도 특이할만하다 하겠지만 보수적 성향이 짙은 기업이 21세기를 대비하여 서서히 변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한 잠재력을 엿볼 수 있었다.

하정실(본지 객원기자)